

완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A Reflection on Consummation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Based on Revelation 21:1-4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article is a reflection on consummation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Most scholars think of Christian worldview in terms of creation, fall into sin and redemption and view that consummation of the Kingdom of God is included in redemption. But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consummation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because there is not only continuity but also a clear discontinuity between redemption and consummation. Revelation 21:1-4 are selected as the main text for consummation and the following four themes are discussed with a biblical theological method: first, the meaning of new heaven and new earth is discussed. Then, by explaining the significance of the holy city, new Jerusalem and bride, a deeper investigation is made to explore the contents of the consummation of the Kingdom of God. After that, the Immanuel principle is dealt with as the final completion of God's covenant with His people. Finally, shalom as the eternal blessing is exposed as the ultimate blessing given to God's people. In conclusion, an attempt is made to identify what kind of contribution it can make in the Christian worldview.

Key Words : consummation, new heaven and new earth, holy city, new Jerusalem, Immanuel, shalom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crosspower@handong.edu

2019년 11월 08일 접수, 12월 16일 최종수정, 12월 21일 게재확정

1. 서론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한 이후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의 저작들을 비롯해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을 다룬 문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창조, 타락, 구속만 언급하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속의 일부로 보거나 아예 간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Dooyeweerd, 1963: 28-38; 양승훈, 1999; 신국원 2005; 송인규 2008; Wolters 2005; Walsh & Middleton, 2005; Goheen & Bartholomew, 2008). 완성 부분을 독립적으로 다룬 것은 필자가 아는 한 휴 웰첵(Hugh Whelchel)이 간략히 언급한 것 외에는 거의 없다(Whelchel, 2016). 웰첵의 책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복음적으로 간략히 언급한 소책자이며 따라서 창조, 타락, 구속 후 완성을 회복의 관점에서 4 페이지 정도로 매우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완성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속과 완성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지만 비연속성도 분명히 있으며 특히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만물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해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¹⁾ 이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잘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 완성을 생략한다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미래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역사관과 시간관을 통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도 완성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다섯 가지 비유 중 시작 이후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나오므로 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완성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고찰하되 먼저 이 부분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관해 배경적인 내용을 다룬 후 완성에 대해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완성 그리고 그 결과 우

1) 표준새번역. 본 논문에서 한글 성경 인용은 모두 표준새번역이다.

리가 누릴 영원한 축복이라는 네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성경신학적 방법론(biblical theological method)을 사용하여 각 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도출하고 주해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성경신학적인 방법론은 각 본문에 대해 주해하면서 성경전체적인 흐름을 통해 그 의미가 어떻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고찰하는 방식이다. 그 후에 결론적으로 이 완성의 비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과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간의 관계를 진술하겠다(최용준, 2008).²⁾

II. 완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1. 요한계시록의 배경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이며 성경적 세계관의 마지막인 만물의 최종적 완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계시(Revelation, 독어로 Offenbarung, 네덜란드어로 openbaring)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에 대해 먼저 부담을 느낀다.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 매우 조심스럽고 상당히 두려운 책으로 생각하는 선입관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계시록을 그냥 덮어두고 매우 신비로운 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야 하는 책이며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분명히 말한다.

둘째로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성전’(聖戰), 즉 거룩한 전쟁의 책이다. 이것은 총이나 칼과 같은 무기로 싸우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간에 치열한 갈등과 영적 대결을 뜻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승리하고 모든 악의 세력들은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미

2) 이 완성 부분에 관하여는 필자가 이미 『세계관은 삶이다』(2008) 및 『응답하는 인간』(2008)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보완하여 보다 깊이 다루고자 한다.

리 보여 주는 책이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나아가 ‘위로와 격려’의 책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보증하셨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 최강인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위기나 환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심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김주찬, 2004)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도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어 교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순교했고 많은 성도들도 체포되었다. 당시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구순의 노사도 요한도 결국 체포되어 끓는 기름 가마 속으로 던져졌다고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몸이 전혀 상하지 않자 로마 군인이 놀라 다시 그를 꺼내었고 로마 황제는 이 사도를 가까운 밧모섬으로 유배를 보낸다.

이 밧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다른 죄수 노예들과 함께 하루 종일 바위를 깨는 노역을 하게 된다. 이 일이 너무 힘들어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었다. 이 소식이 밧모섬을 다스리던 로마 감시대장에게 보고되었는데 얼마 후 그의 처남이 귀신에 사로잡혀 병들게 되자 이 감시대장은 사도 요한을 초청하여 기도를 부탁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귀신은 떠났고 이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되자 그 식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후 감시대장은 사도 요한에게 더이상 노역을 시키지 않고 섬 남쪽 중턱에 있는 동굴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³⁾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예루살렘교회의 집사 출신인 브로고로가 있어 이 노사도의 시중을 들었다. 사도 요한은 그 때부터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어느 주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말의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것을 브로고로를 통해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어 성도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다. 이 섬에 약 1년 반 정도 머무는 동안 이 노사도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어 결국 이 섬 전체가 복음화 되었으며

3) 지금도 밧모섬에는 이 동굴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나중에는 풀려나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사역하다가 여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요한계시록은 ‘찬양’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이다.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천하 만물이 새 노래로 찬양 드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책을 ‘신약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헨델의 메시아 제 3부가 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작곡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다. 특히 5장 13절을 보면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편 148편의 완성이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영원토록 만물이 함께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릴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성가대의 찬양이나 일반 찬송 및 여러 복음성가들을 부를 때, 이 찬양의 완성을 미리 맛보며 연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우주적 찬양과 예배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은 잘 보여준다.⁴⁾

다섯째, 요한계시록은 ‘선교’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 준다. 7장 9-10절에 사도 요한은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계 7:10)라고 외치는 것을 보고 들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열방들이 인종과 언어 및 문화를 초월해서 모두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본 것이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 극소수에 불과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 주신 이 장면은 놀라운 비전이 아닐 수 없다. 복음이 상당히 편만하게 증거된 현대에 사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점점 더 실현해 가심을 볼 수 있다. 결국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침내 완

4) 미국의 루이 기글리오(Louie Giglio) 목사는 하늘의 별들에서 나오는 소리들과 바다의 고래소리를 합성하여 ‘위대하신 주님(How great is our God)’ 찬양을 함께 부르는 예시를 보여준다.

www.youtube.com/watch?v=gdFnGumjANo

성하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보여 준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앞서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보게 되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신 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거룩하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21장 1-4절을 보면 요한은 완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계 21:1-4)

여기에 나타난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임마누엘의 완성 및 영원한 축복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제 이 네 주제들을 하나씩 성경신학적 방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겠다.

2. 새 하늘과 새 땅

먼저 1절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다’는 헬라어도 단지 시간적으로 새로움을 가리키는 ‘네오스(νέος)’가 아니라 완전한 질적 변화를 가리키는 ‘카이노스(καινός)’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러한 신천신지에 대해 구약의 시편 기자는 이미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햇수에는 끝이 없습니다.”(시 102:25-27)

우리가 입는 옷도 오래 되면 낡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지금 하늘과 땅도 낡게 되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옷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며(사 65:17) 이 신천신지는 영원할 것이고(사 66:22) 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낙원의 회복임을 다음과 같이 예언한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젓 떼는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사 11:6-9)

신약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사역들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 재탄생(cosmic palingenesis)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 나며, 배고픔이 더이상 없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이상 질병이나 악한 귀신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없으며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이 신천신지에 대해 이렇게 간접적으로 언급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마 5:18)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된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천지가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완성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음 구절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마 19:28)

또한 마태복음 24장 6-8절에 보면 예수께서 종말에 관해 예언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한다(개역개정). 그런데 표준새번역을 보면 마지막 부분이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라고 조금 다르다. 여기서 ‘재난’과 ‘진통’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전쟁, 지진, 해일, 기근 등은 말세가 가까웠다는 경고성 사인인 반면 후자는 임산부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산고를 뜻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이다. 그리스어 원문도 보면 8절의 “πάντα δὲ ταῦτα ἀρχὴ ὀδύνων”에서 “ὀδύνων”은 해산의 진통을 뜻한다(막 13:8 참조).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도 “birth pains”,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도 “birth pangs”로 둘 다 재난의 의미라기보다는 진통의 뜻으로 번역하고 있다.

결국 이 예언은 종말론적 재난의 양면성을 계시한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지진, 기근 등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재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를 낳은 후 기쁨에 겨워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는 산모와 같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현재의 피조물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간절히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롬 8:19-22)

로마서 8장 22절을 개역개정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원어는 말하고 따라서 표준새번역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 또한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 즉 구속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는데 여기서 이 신음도 산고의 고통을 뜻한다. 나아가 바울 사도는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이 새 창조의 질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고후 5:17)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담대하게 예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재림할 것을 이렇게 외쳤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행 3:21)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말한다. 왜 그런가?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 15장 10절과 시편 46편 3절을 보면 바다는 무질서와 혼동의 상징으로 나온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심지어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한 짐승이 나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다. 즉 이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신다는 의미이다.

“주님께서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시 65:7)

“주님은 소용돌이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시 89:9)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사역하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두려워 떨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막 4:39). 하지만 주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아예 바다가 없다. 즉 더이상 어두움, 무질서, 혼돈 및 죄의 가능성이 없고(*non posse peccare*)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가 완성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 시에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posse peccare*)였다가 타락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non posse non peccare*)로 죄의 노예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posse non peccare*)가 되었고 마침내 처음 하늘 및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 물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맛보며 체험하고 있으나, 미래에 이 친천신지가 임할 때 완전해진다는 의미에서 구속과 완성 간에는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동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1) 거룩한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사도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움을 보았다(21:2, 10).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기에 속된 것이 전혀 없는 성결한 도성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산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 도성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해 보니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일만 이천 스타디온으로서 정육면체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이 도시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축물이 두 개 나온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성막과 이 성막을 본 떠 만든 솔로몬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에 정육면체 형태의 건물이 단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이다. 성막의 지성소는 각각 10규빗이고 성전의 지성소는 각 20규빗이다(출 26; 대하 3:8).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지성소가 완성된 곳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직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화가 완성된 곳임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사도 요한은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 속된 것과 “개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한다(계 21:8; 21:27a; 22:15). 특별히 여기서 “개들”이란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무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도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 다시금 성도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게 하셨다. 이제 그 준비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2)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에 대해 살펴보겠다. 성경에 예루살렘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은 창세기 14장 18절인데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동시에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람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아브람은 그가 가진 것 십분의 일을 예물로 멜기세덱에 준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란 ‘의로운 왕’이란 뜻이며 그는 살렘의 왕, 즉 ‘평화의 왕’이기도 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말한다(히 6:20). 이 사건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왕의 왕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것을 예표한 것이다.

그 후 여호수아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으나(수 15:63) 나중에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삼하 5:6-10). 그 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곳은 더욱 유대 민족의 영적 중심지가 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성이기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을 정도였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이곳으로 모든 민족이 물밀듯 모여드는 환상을 보기도 했으며(사 2:2) 에스겔 선지자도 비록 지상의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분명히 보았다(겔 40-48).

신약 성경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곳에 나온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0-53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한다. 여기서 거룩한 도성은 물론 예루살렘이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예표로 보여 준 것이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2-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 그리고 은혜는 본처인 사라에 비유한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

다. 하갈은 시나산을 뜻하고 동시에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나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며 은혜와 자유롭게 하는 복음에 속한 여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이상 율법에 매인 종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로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은혜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강조한다(빌 3:20). 히브리서 기자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며(히 11:10)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고 말한다(히 11:16).

더 놀라운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22절인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이른 시나산도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지만 성도들은 장차 갈 시온산, 즉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이미 종말론적으로 이르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성령 안에서 이를 미리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장차 올 도시를 찾아가는 순례자이다(히 13:14).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분명히 말한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지상의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주시는 모든 축복들의 종합이 샬롬(shalom)이다. 그러므로 아론의 축복도 ‘샬롬’으로 끝나며(민 6:26)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 샬롬을 주셨다(요 20:19, 21, 26).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은 샬롬이 완성된 곳임을 알 수 있다.

(3) 신부

나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고 말한다. 성경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종 하나님의 아내로 비유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런 비전들을 보았고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네 백성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패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네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사 49:16-18)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사 54:5)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패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 겹옷으로 둘러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사 61:10)

더 대표적인 예는 호세아서이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을 호세아 선지자는 부정한 아내 고크에 비유하면서 비판하는 동시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했다(호 4:13-14; 5:4; 6:6; 9:1).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 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 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호 2:19)

신약성경에도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즉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다(요 2:1-10). 이는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도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다(마 9:15; 22:2이하; 25:1이하; 막 2:19이하; 요 3:29).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에서 성도들은 과거에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했지만 이제는 그 남편이 죽었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순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다”고 말한다(고후 11:2). 에베소서 5장 22-33절에도 부부간의 윤리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그 원형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

5)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영어에는 도시(city)라는 단어에 성(gender)이 없지만 유럽의 언어들 가령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결혼의 이미지가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장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누릴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맛보며 누리는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완성된다는 것이다.

드와이트 펜테코스트(J. Dwight Pentecost)는 이런 의미에서 이 영원한 도성에서 누릴 성도들의 삶을 아홉 가지로 잘 요약했다.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고전 13:12), 둘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계 14:13), 셋째, 온전한 지식을 소유함(고전 13:12), 넷째, 거룩해진 삶(계 21:27), 다섯째, 기쁨의 삶(계 21:4), 여섯째, 섬김의 삶(계 22:3), 일곱째, 가장 부요한 삶(계 21:6), 여덟 번째, 영광스러운 삶(골 3:4)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는 삶(계 19:1)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Pentecost, 1964: 581-82). 따라서 여기서도 구속과 완성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즉 이미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현재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연속성이 있으나 그것이 완전히 거룩해진 미래의 새 예루살렘에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점에서 질적인 비연속성도 말할 수 있다.

4. 임마누엘 언약의 완성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임마누엘 언약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약시대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형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창 1:26-27). 이것은 마치 뛰어난 예술 작품 속에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혼이 들어 있는 것과 같다.

족장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복하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항상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비

독일어(Stadt), 네덜란드어(stad) 그리고 불어(ville)에는 성이 있으며 모두 여성임을 알 수 있다.

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와 함께하시며 그를 도우심을 보고 인정했다(창 21:22). 이삭도 마찬가지로 계속 우물을 팠으나 그랄 지방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자 다투지 않고 양보한 후 브엘세바로 갔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창 26:24). 그러자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야곱 또한 형 에서를 속인 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그가 후에 벨엘이라 명명한 곳에서 잘 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받았다(창 28:15). 요셉도 비록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고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창 39:2). 이렇게 모든 족장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게 될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실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출 3:2).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바대로 성막인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그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다고 출애굽기 40장 34절은 말한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쉬키나'(Shekinah, שכינה)라고 한다. 또한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는데(출 40:36-38)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막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것을 미리 보여 준 것이다.

이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했을 때에도 다시 나타난다. 성전을 완공한 후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 버렸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했다(왕상 8:10; 대하 7:1-3).

이후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았는데 이사야는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구름이 덮일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주님께서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단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

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사 45-6)

에스겔 선지자 또한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라고 예언했다(겔 37:27-28). 에스겔은 그가 본 환상 마지막에서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사마’라고 불릴 것이라 했는데(겔 48:35) 이는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도성에 늘 함께할 것을 본 것이다.

스가라 선지자도 같은 비전을 보면서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간다. 내가 네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할 것이다. 그때에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고(슥 2:10-11) 그 결과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으로, 시온산은 ‘거룩한 산’으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한다(슥 8:3).

신약시대에는 주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마 1:23). 요한복음 1:14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그 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한다. 여기서 ‘사셨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쉐키나’의 동사형 ‘eskenosen(ἐσκήνωσεν)’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신 사건이요, 따라서 이는 임마누엘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고 증거한다.

예수께서는 사역 중에도 이 영광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산상에서이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후 영광의 구름이 그를 덮었다(눅 9:29-35).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며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수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을 미리 보여 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살전 4:17).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롬 8:18).

예수께서 제단, 성막 및 성전의 구체적인 실현이셨기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을 자신의 육체에 비유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성전의 휘장 문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친히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나아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 이전에는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므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한다(고전 3:16; 6:19).

그런데 완성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심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계 7:15). 그 결과 성경 전체를 통한 언약의 핵심이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시편 125편 2절처럼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듯,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으로 감싸 주실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 나온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싸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 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계 21:11, 18-19a, 21)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에 함께 하시기에 새 예루살렘 안에 다른 성전이 있을 수 없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도시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곳에는 구원받은 여러 민족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이고 여러 나라 사람들은 각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곳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말한다(계 21:22-26). 이것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구속과 완성

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볼 수 있는데 창조 이후부터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 성육신으로 임마누엘하신 후 성령으로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연속성도 있으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점에서(고전 13:12) 구속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한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5. 영원한 축복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가장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시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4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을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하여 슬픔이나 고통 그리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거의 매일 순교자들이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먹이로 희생당하고 인간 헛물로 끌려갔기에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열두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사도 요한의 표현은 더욱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원한 축복에 대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민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풍성한 축복의 잔치를 베푸시면서 죽음의 상징인 수의를 없애버리시고 모든 눈물을 깨끗이 닦아 주시며 세상에서 당한 부끄러움도 제거하실 것이므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들은 마침내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사 25:6-9; 35:10, 51:11). 그 외에도 예레미야(렘 31:16), 스바냐(습 3:14) 및 스가랴(습 2:10)도 같은 예언을 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53절에서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한다(계 7:17).

이러한 영원한 축복은 한마디로 살롬이라 할 수 있다. 이 살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꾸미시며 항상 지켜 주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사야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홍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변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네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사 54:11-15)

이 하나님의 도성은 결코 불안이나 공포 또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에 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축복과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안식을 누렸던 것과 같이 이 재창조의 세계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바로 여기에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으며 만물의 최종적 완성의 비전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구축과 완성의 연속성 및 비연속성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어 성도들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연속성과 더불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러한 축복을 완전히 누린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점도 동시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III.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깊이 고찰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완성으로 끝난다. 창조는 매우 좋은 상태(very good)로 시작한 것일 뿐(창 1:31), 최선의 상태(the

best)인 완성은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구속의 언약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및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며 최상의 상태가 된다. 따라서 창조는 완성을 가리키며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조의 에덴동산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한 새 예루살렘으로 발전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완성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이며 새 예루살렘인 신부의 모습, 임마누엘 언약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을 살림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는 처음 하늘과 땅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도래했음을 의미하여 타락으로 인한 모든 왜곡과 죄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종말을 맞이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릴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구속의 상황에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노력들은 헛되지 않고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완성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최종적인 정점에 해당하므로 구속과 구별하여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구속과 완성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완성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비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구속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확장된 점진적 과정이지만 완성은 최종적으로 완전해졌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주찬 (2004). *빛모섬에서 돌아온 사도요한*. 서울: 옥합.
- [Kim, J. C. (2004). *Apostle John Who Came Back from Patmos Island*. Seoul: Okhap.]
- 송인규 (2008).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과의 만남*. 서울: IVP.
- [Song, I. G. (2008). *Rewritten Christian, World, View*. Seoul: IVP.]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Shin, K. W. (2005). *Nicodemus' Glasses*. Seoul: IVP.]
- 양승훈 (1999).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CUP.
- [Yang, S. H. (1999). *Christian Worldview*. Seoul: CUP.]
- 최용준 (2008). *세계관은 삶이다*. 서울: CUP.
- [Choi, Y. J. (2008). *Worldview is Life*. Seoul: CUP.]
- _____ (2008). *응답하는 인간*. 서울: SFC.
- [_____. (2008). *Homo Respondens*. Seoul: SFC.]
- Dooyeweerd, H. (1963). *Vernieuwing en Bezinning om het Reformatorisch Grondmotief*, Zutphen: J. B. Van Den Brink & Co.
- Goheen, M. W. & Barthelomew, C. G.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Baker Academic.
- Walsh, B. J. & Middleton, J. R. (2005). *The Transforming Vision: Shaping a Christian World View*, Grand Rapids: Eerdmans.
- Whelchel, H. (2016). *All Things New: Rediscovering the Four-Chapter Gospel*, The Institute for Faith, Work & Economics.
- Wolters, A. M. (2005).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Grand Rapids: Eerdmans.
- www.youtube.com/watch?v=gdFnGumjANo (2019. 10. 13. 검색)
- [www.youtube.com/watch?v=gdFnGumjANo (2019. 10. 13. Accessed)]

논문초록

완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최용준 (한동대학교)

본 논문은 완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창조, 타락 및 구속으로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구속의 일부로 본다. 하지만 본 논문은 완성을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구속과 완성 간에는 연속성도 있지만 비연속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완성에 관한 대표적인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중심으로 성경신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를 기술하고, 거룩한 도성과 새 예루살렘 및 신부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떠한 내용인지 보다 깊이 살펴본 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원리의 완성을 통한 언약의 최종적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으로서의 살롬에 대해 고찰한다. 그 후 이 논의가 기독교 세계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도출한다.

주제어 : 완성,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신부, 임마누엘, 살롬